

간추린 청렴 소식

[1] 성남지청, '청렴韓 공직문화 만들기' 실시

성남지청은 만해기념관 탐방, 창작 마술로 배우는 청렴 인문학 특강, 청렴 문구가 부착된 청렴커피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렴강의에 인문학과 창작마술을 가미하여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2] 홍성지청, '청렴을 향해, 청렴 골든벨을 울려라'



홍성지청은 청렴을 상징하는 과녁을 향해 병뚜껑 날리기, 청렴 ox 퀴즈 골든벨, 기관장 청렴실천다짐 등을 통해 청렴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과녁 행사 중 청렴실천방법을 제시하는 직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실천의지를 더했습니다☺

[3] 평택지청, '청렴 어(싱)&플(로깅)' 진행

평택지청은 전 직원 청렴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소형현수막으로 제작 및 지참하여, 청렴 어싱(엔벨걸기)&플로깅(환경정화)을 진행하였습니다.



쌓여가는 청렴 마일리지!
국민의 신뢰입니다

- 청렴 슬로건 우수작 중 발췌 -

[4] 안산지청, '가을맞이 청렴 지침서' 전달



안산지청은 청렴한 공직 생활의 지침이 되는 문구가 실린 도서를 추천받아 구매하여, 책갈피로 제작한 추천사와 함께 신규검사 및 수습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브라이언 헤어, 베네사 우즈)
- 지청장님 추천 도서 -



알아두세요

반부패 청렴 O-X 퀴즈

'반부패 청렴 인식'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간단한 문항의 OX퀴즈로 청렴 소양을 확인해보세요!



A지검 사무국장 및 집행과장이 A지검과 계약한 파쇄 용역 업체의 대표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하였으나, 용역 업체 대표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접촉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업체 대표의 비용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그 후 사랑의 기회가 올 때마다 난 도망쳤어.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을거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예요.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터가 있었는데
난 상자에 모셔두기만 했어요.
망가질까 겁이 나서 방 안에서 두 번정도 타기만 했죠.
그러다보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발이 커져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감정은 스케이트와는 달라.

같을 수도 있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잖아요.
감정을 숨겨두면 내 스케이트처럼 되고 말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잃는 건 없어요.



위 대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나 홀로 집에2' 에서 비둘기 아줌마와 케빈이 나누는 대화 중 일부입니다. 바쁘게 지나온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가슴 속 상자에 담아두기만 했던 마음이 쓸모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용기를 내어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렴 상식이 쑥쑥!



산타클로스가 전하는 청렴의 가치



산타클로스의 기원

성 니콜라스의 청렴한 삶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3세기경 소아시아(현재 터키) 지역의 미라(Myra)라는 도시에서 활동했던 성 니콜라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사랑한 주교로 청렴함의 상징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보답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청렴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지요.



산타클로스의 역사

다양한 문화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

성 니콜라스는 그의 자비로운 행적 덕분에 중세 유럽에서 널리 숭배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과 함께 성인 숭배가 줄어들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신티클라스(Sinterklaas)'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계속 이어졌지요. 그 후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전해진 산타클로스는 1931년 코카콜라 광고 캠페인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청렴한 정신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

v 나눔의 실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

v 공정한 판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편애하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

v 겸손한 태도

나눔을 실천하더라도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음

v 윤리적 행동

누군가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투명하고 청렴하게 행동

v 공동체 정신

자신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함께 성장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청렴한 나눔의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조선시대 선비집안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형편이 어려워 국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궁여지책으로 맹물을 끓여 올리던 이 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청비탕 ② 홍비탕 ③ 백비탕

※ 힌트 : Monthly청렴 2024년 11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4. 12. 15.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11월호 퀴즈 정답은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



축!
당첨

임OO(울산), 노OO(서울서부), 박OO(대검), 채OO(서울중앙), 서OO(의정부), 진OO(수원), 정OO(광주), 변OO(진주), 최OO(부산), 고OO(외부)

청렴 한 컷



♣ 구세군 자선냄비



구세군 자선냄비는 구세군이 연말에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선활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1891년 겨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한 척이 난파됐을 때 구세군 사관인 조셉 맥피가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부두가에 솔을 걸어 두고 돈을 모금하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28년 서울 명동에서 낡은 양은냄비로 첫 모금을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QR코드를 통한 기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선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하니, 올해 연말에는 꼭 구세군 냄비가 아닐지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